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는 산업화와 발전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의 도입, 경제관련 법 체계, 기업경영 방식, 고용 방식 등 여러 제도들을 모방, 도입, 정착시켜 왔다. 관주도 경제운영 방식도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 자본과 기술의 유입, 그리고 양국간 교역 확대가 가속화되었고 분업체계가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시장구조, 기업구조, 산업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쟁관계로 발전했으며 또한 한국은 외환위기, 그리고 위기 이후의 대폭적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겪으며 기업지배구조, 금융감독규제 등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영미식 시장경제형으로 빠르게 변화해 왔다. 일본은 늘 한국보다 앞선 선진경제로서 한국에 앞서 시장 개방,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일본경제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었다. 지금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으나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 중국경제의 빠른 부상 등으로 이제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똑같은 시간대의 도전과 과제를 겪게 되었다. 그 것은 세계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국내 시장구조와 운영방식의 글로벌화, 그리고 중국 및 후발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빠른 산업, 고용구조의 개편 필요성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의 구조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어떤 면에서 지난 약 20년간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개혁과 변화의 도입을 요구 받고 또 이를 진행해 오기도 했다 그 것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고, IMF프로그램하에서 구조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데 반해 일본은 금융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국내의 정치적 동력과 해외의 압력이 덜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반세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경제격차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소득수준, 산업구조, 기술개발 능력 등에서 한국은 일본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한국이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경제가 걸어온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과거 한국이 일본경제를 따라 고성장을 해왔듯이 이제 한국은 일본경제를 따라 장기침체와 저성장 패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운영방식, 기업경영 방식, 고용형태 등이 일본을 많이 닮아왔고, 인구구조 등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환율수준, 부동산가격 변화의 추이 등 일본경제가 1980년대 이후 걸어온 길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 인구구조, 총요소생산성(TFP), 명목성장률의 변화 추이에서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일본경제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0년 한국과 일본경제가 동시에 당면해 온 문제들도 있다. 고용구조의 악화, 소득분배의 악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는 무엇보다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 같은 시기에 양국 경제

에 공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와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의료 연금 등 복지수요의 증대이다. 이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의 개편 등을 요구하고 세제와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중국경제의 빠른 추격에 따른 산업구조의 빠른 개편 필요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술개발체제의 혁신 등 전반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다. 셋째, 지난 20년 동안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혁,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의 필요성이다.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로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게 늘어 났으며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투자 정체, 해외투자 확대에 의한 제조업 고용 감소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영세서비스, 자영업으로 인력을 대거 내몰게 되어 소득분배 악화를 심화시켰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무소득 가구주의 증가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지난 20여년 간 빠르게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세계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국내의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정체, 그리고 재정,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력을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세제의 개편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서구경제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서구경제와는 다른 경제운영방식, 시장구조, 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각 분야에서 담합과 유착이 뿌리깊게 퍼져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거 추격과정에서는 매우 유효한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내경제의 높은 개방도, 세계화의 빠른 진전, 중국 및 신흥국경제의 빠른 부상 등이 가져온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는 국내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 향후 구조개혁과 새로운 시장규율의 확립에 있어 글로벌기준으로의 적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겠으나 반드시 영미식 시스템과 시장구조, 경쟁방식이 한국과 일본에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공동의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을 따라 하면 어느 정도 안전한 성장궤도를 걸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한국과 일본경제는 함께 보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보다 사회통합적인 경제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경제가 답습해 온 장기침체의 길을 똑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일본경제의 경쟁자로 부상했으나 아직도 보완적 관계를 가진 부분도 많다. 여전히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의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향후 기술협력, 제 3국으로의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모색을 위한 양국의 학자, 지식인, 관료들의 교류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